東亞日報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十二月一日前場 [illegible] 二十一丁上鞘 [illegible] 是天候不良으로 [illegible] 에 化하여 若干의 賣材 [illegible] 米界의 氣勢 [illegible] 至五六十丁의 上鞘 [illegible] 然而今朝場面은 戰性을 [illegible] 場面은 比較的 軟化로 始하니 [illegible] 丁上鞘인 二十九圓에 初付되니 [illegible] 二月限 新市 發會價格으로 [illegible] 二開鞘 六百四十四丁이러라

# 알메니아十萬孤兒를爲하야

## 飯食會를記憶하자

虐殺! 民族的大虐殺! 우리는 이무서운 소리를 드를때에 몸서리칠 血管의 피가 어는것갓다. 一千九百十五年 歐洲大戰亂의 [illegible] 한때로부터 民族의 悲劇을 宗敎的迫害로 因하야 알메니아民族에 土耳其人은 알메니아 大放逐 大虐殺을 敢行하얏다. 이때문에 二百萬人口의 二分의一은 이 虐殺을 當하얏고 三分의一은 그 故土에서 放逐을 當한것이다. 그 結果 東西南北의 各處로 흐터진 알메니아 民族은 流離亡命의 亡國民族이 되고 말앗다. 國亡家破한 後 알메니아 民族의 運命도 오히려 悲慘하거든 하물며 父母를 일코 그 依支할바를 알지못하는 十萬의 孤兒가 近東各地에 散在함이리오. 이 十萬의 孤兒는 實로 赤裸々한 々의 生命이다. 卽 扶養의 親도 업고 自活의 能力도 업는 可憐한 狀態에 잇다. 彼等은 그 大部分이 十六歲以下의 孤兒이다. 그中에 約一割假量의 兒童은 孤兒院 學校나 其他의 幼稚程度의 學校를 修業한 結果 多少의 自活策이 잇게되얏다 하나 其餘의 九萬餘兒童은 各國의 慈善團體에 依하야 그 一縷의 生命을 維持케한다 한다.

彼等은 아직까지 名義上으로는 土耳其國家에 그 國籍을 두엇스며 또 土耳其語를 그 國語로하는것이다. 그러나 그 故國인 土耳其는 이미 彼等의 故國이 아니오 또 彼等은 [illegible] 아니다. 그러면 前途는 將次엇더케될는지 알수업는일이다. 元來 알메니아 地方은 北으로 露西亞에 連하고 東으로 波斯와 南으로 메소포타미아에 接한 約八萬方哩의 小地域이다. 그러고 그 北半이 露西亞의 統治를 밧엇고 南半은 土耳其의 羈絆에 屬하얏든것이다. 알메니아 民族의 大部分은 基督敎를 信奉하며 그 一部分만 回々敎徒이다. 그 結果 알메니아 民族의 大部分을 占領하는 基督敎信徒는 宗敎上 信仰의 差異로 土耳其人과 여러가지 嫉視反目이 不絶하얏든것은 [illegible] 民族自決과 統一共和國의 建設을 提唱하얏고 그 結果 土耳其人과 敵對行動을 取하게되얏든것이다. 歐洲大戰亂이 잇슨後 當時 米國大統領 윌손氏는 알메니아 民族의 要求에 [illegible] 同情을 表하얏든것이 알메니아 地方의 獨立을 承認하는것보다 [illegible] 國家에 委任統治를 하게 하얏다. 그 結果 土耳其의 羈絆은 免하게되얏스나 委任統 [illegible]

# 注目할印度의選擧

## 獨立黨이頗히優勢

印度立法議會와 地方議會는 三年의 爪滿이 되어 目前에 解散되고 方今 總選擧中인바 十二月中旬까지에는 完了할터인데 在來로 一般印度人은 立法議會나 地方議會議員選擧에 對하야 甚히 冷淡하야 實地로 投票하는者는 有權者의 四割에도 不過하다. 그러나 今次總選擧에 스와라치(自立)黨이 자못 優勢함은 가장 注目할일이며 特히 『봄베』州知事選擧에 와서는 全員六十人中에 二十五人을 選出하야 前途는 매우 暗淡한데 이미 知名한 印度人 親英政治家 五六人이 落選되고 反對派議員이 此에 代하엿스며 만일 英國이 吾黨의 要求를 不聽하면 政府의 行動을 妨害하기로 決定하얏는데 스와라지黨의 宣言書의 一節에 가로대 『만일 英國이 吾黨에게 有力한 政治的 權力을 讓하지 아니하면 吾黨은 全員一致로 立法議會와 地方議會를 通하야 政府의 行動이 不可能하도록 妨害하겟노라』 하얏더라 (上海發)

# 라텐聯盟組織說

## 西班牙帝의伊國訪問結果

『마드리드』에서 發行하는 『마탄』新聞紙通信員이 探知한바에 依하면 過般 西班牙皇帝가 羅馬를 訪問하얏슬時에 『라텐』同盟問題가 討議된 結果 伊太利 西班牙 其他 南米의 數個國은 國際聯盟으로부터 脫退하게될는지 未知이라더라 (巴里二十九日發)

# 獨逸新內閣成立

## 首相은中央黨首領

中央黨首領 『마쓰』氏는 獨逸新內閣을 組織하얏는데 其閣員의 候補는 左와 如하더라

首相 『마쓰』氏
內相 『야레쓰』氏
外相 『스트레쓰만』氏
國防相 『게쓰렐』氏

新內閣은 前內閣과 殆히 同性質이나 다만 前內閣보다는 王黨代表者가 增員되얏슬뿐이더라 (伯林二十九日發)

伯林으로부터 來한 電報에 依하면 前普魯西首相 『스테겔 월드』氏도 亦獨逸新內閣의 組織에 失敗하얏더라 (巴里二十九日發)

# 米議會에新葛藤

米國議會는 來週中에 新會議를 開할터인바 議會內에서 葛藤이 起하리라 期待되니 即進步派又는 共和黨內의 叛徒라 稱할만한 分子는 元老院委員中에 從來보다 多數의 代表者를 參加케하고자 要求할터이며 民主黨에서는 少數임에 不拘하고 能히 共和黨에 肉迫할만한 實力이 有함으로 機會를 보아 葛藤을 激發케하고자 하는中인데 此에 對한 叛徒의 作戰은 共和黨이 지금까지 保持하얏던 多數를 危殆케하리라 威嚇하는中이더라 (華盛頓二十九日發)

# 『쫀손』氏遊說開始

加州選出元老院議員 『쫀손』氏는 大統領選擧를 目前에 두고 遊說演說을 開始하얏더라 (市加古二十九日發)

# 依然積極인米國

## 廣東에無電局設置計畫

米國海軍省은 廣東에 動亂이 不絶함에 鑑하야 同地에 軍事專用無線電信局을 設置할 計畫이 有함에 對하야 駐米中國公使施肇基氏는 國務卿 『휴스』氏에게 中國의 主權을 保全하는 意味로 右計畫을 中止하라고 要求한 結果 『휴스』氏는 此件에 關하야 再次海軍卿과 協議中이라는 入電이 有하더라 (上海二十八日發)

# 雙橋局引渡는拒絶

芳澤日本公使는 三十日 外交部에 顧外交總長을 訪問하고 雙橋無電을 中國政府에 引渡할 件에 關하야 抗議를 提出하얏는데 引渡手續, 經營問題, 引渡後 米國無電과의 關係 及 其他 類似한 基礎交涉이 成立되기 前에는 中國側의 引渡要求는 到底히 問題가 되지아니한다 하얏더라 (北京三十日發)

# 中佛新電線契約

## 北滿에電線網新設

哈爾賓駐在佛國領事 『크비렌』氏는 哈爾賓電報總局과 『씨크라나』 『滿洲里間, 滿洲里海參威間, 黑河齊齊哈爾間』의 電線架設假契約을 締結하얏는데 內容은 有効期間을 十六個年으로하고 此期限이 滿了後는 無償으로 此를 返還하기로하얏스며 經費는 百萬圓인데 中佛合辦事業으로하기로 하야 旣히 北京交通部의 許可를 得하얏다더라 (哈爾賓三十日發)

# 司法領事抗議

在奉天日本總領事館에 司法領事를 置함은 事에 對하야 國際上 慣習에 違反된것이라 하야 中國外交部로부터 日本公使館에 抗議를 提出하얏더라 (北京二十九日發)

# 議員亂鬪調查

衆議院議員 傷害者는 變方으로부터 起訴한 結果 現狀을 臨檢調査中이더라 (北京二十九日)

# 財政部의大淘汰

財政部는 二十九日 大總統令으로 外部員의 淘汰實行을 發表하얏는데 休職이 百十四名, 退職이 二百五十名, 免職이 三百名이며 其他 交際費等도 廢止하얏더라 (北京二十九日發)

# 曹統痼疾再發

曹錕氏는 別名을 曹瘋子라 云하야 時々로 失神하는 病이 有한데 過般 大總統選擧問題에 過多히 惱神하야 其目的은 僅히 達成하얏스나 繼續하야 諸般의 難問題가 疊出함으로 近日에 又復 本病이 發하얏슬 뿐아니라 後頭部에 腫症이 生하야 非常히 苦境으로 經過하는中이더라 (北京三十日發)

# 東邊道尹後任

東邊道尹 王順存氏는 今回 辭職하기로 決定하얏는데 其後任으로는 制丈局 督辦 林程秀氏, 吉林財政廳長 孫其昌 等의 說이 高하더라 (安東縣三十日發)

# 選擧方法討議

## 法制審議會

三十日의 法制審議會는 繼續하야 選擧方法을 審議하얏는데 其結果는 左와 如하더라

一、選擧費用에 制限及決算報告를 行케할件
二、小學校를 演說會場으로 使用케할件
三、某程度外지는 郵便稅를 免除하자는것
四、船員其他不在者의 投票에 關한 規定을 設할件
(以上 可決)
一、運動員의 戶別訪問禁止 (可決)
二、政見發表演說會에서 喧騷妨害함에 對한 罰則을 設할件 (可決)
三、銀行會社가 自己의 利益을 爲하야 政黨又는 候補者運動者에게 財政上의 助力을 行한 者를 處罰할件 (可決)
等 外 關則十數件을 可決하고 散會하얏더라 (東京電)

一、候補者報告의件
二、候補者保證金件
三、競爭者가 無한 時는 投票를 用치아니할件
四、保證金沒收의件
五、郡市를 投票區로할件
六、選擧立會人은 候補者로부터 推薦할件
七、天災其他의 不得已한 境遇에는 特別規定을 設할件
等은 一切可決하얏고
八、投票日을 日曜及公休日로할 件은 否決되얏스며 次에

# 各地豫算內容

來年度 各地 特別會計 豫算은 過般 來 拓殖事務局에서 審査하야 臺灣 南洋의 豫算은 旣히 大藏省에 廻送하고 朝鮮 樺太 關東 總督 各 豫算도 近日 大藏省에 送附할터인데 來年度 豫算中 困難하다 指目되든 補給金 問題는 朝鮮에 就하야는 大藏省과 諒解가 되얏슴으로 今後 多少의 計數에 異動이 有하야도 大變更은 無하겟스며 來年度 豫算總額은 如左하더라

| | |
|---|---|
| 朝鮮 | 一億四千萬圓 |
| 臺灣 | 九千二百萬圓 |
| 樺太 | 二千五十萬圓 |
| 關東州 | 五百八十萬圓 |
| 南洋 | 四百二十五萬圓 |
| 合計 | 二億七千二百五十五萬圓 |

補給金은 前年과 가치

| | |
|---|---|
| 朝鮮 | 一千五百萬圓 |
| 樺太 | 三百萬圓 |
| 關東州 | 九十萬圓 |
| 南洋 | 二千百九十萬圓 |
| 合計 | |

又 公債는

| | |
|---|---|
| 朝鮮 | 一千萬圓 |
| 樺太 | 百五十萬圓 |
| 關東州 | 百萬圓 |
| 計 | 一千二百五十萬圓 |

인데 此에 對하야는 大藏省이 公債를 認할는지 特別補充金을 交附할는지 未定이며 更히 豫算의 內容을 보면 朝鮮領은 前年度에 比하야 約五百萬圓 減少로 此는 公債受入額이 前年度에 比하야 一千萬圓으로 減少하얏슴으로 旣定事業을 延期하게되야 新規事業으로 可見할것은 僅히 稅務監督局의 獨立과 朝鮮大學新營 (總額百七十萬圓中 初年度 四十萬圓) 一二中等學校新設 뿐이며 歲入은 整理緊縮에 依한 餘剩과 補充金 公債受入, 震災에 伴하는 關稅收入減의 二百萬圓을 大藏省에서 特別補給金으로 支給하게된것 等이며 他는 前年과 大略 同樣이더라 (東京電)

# 國境警官增員

## 實行一時延期와 武裝警備船配置

國境地帶警備를 爲하야는 現在 平北咸鏡南北道江岸地方에 配置된 警官數가 第一線만 約二千名이요 第二, 第三線을 加算하면 總數 二千七百餘名을 算하는데 이나 江岸地方 各 警察地에 駐屯한 陸軍守備隊가 撤退하게되면 更히 數百名을 增員할 必要가 잇다하야 警務局은 今夏 以來로 이에 對한 善後策을 講究하여왓스나 震災以後 豫算이 緊縮되야 여러가지 計劃은 아직 實現할 可望이 업게되엿슴으로 守備隊의 撤退도 于今 延期되여온바 延期의 期間은 來三月外지이나 總督府側의 狀況이 如斯함으로 幾月外지 期間은 更히 延期될 모양인데 鴨綠江 [illegible] 池軍司令官의 渡東도 主要事務는 亦是 이에 關한것인 듯하다 하며 總

# 鮮銀移管諒解

## 法律改正案作成

鮮銀移管問題에 關하야는 旣히 齋藤總督과 井上藏相間에 諒解가 成立되야 此를 實行코자 目下 大藏省에서는 移管하는 第一步로 鮮銀法의 改正案을 作製中인바 此를 通常議會에 提出할터이라더라 (東京電)

# 私鐵官營

## 實現時機如何

朝鮮私設鐵道의 國鐵移管問題가 藤總督과 井上藏相間에 諒解가 成한 [illegible] 展次 엇던 一部에 喧傳되엿스나 要컨대 이는 單純한 風說에 지나지 아니하다 한 可能性은 잇다할지라도 只今 直時로 이를 移管하기는 困難할줄로 觀測되는 바이에 對하야 加藤 專務는 語하야 曰 元來 六私鐵이 合同된것도 國鐵移管의 첫거름이라 볼수잇스며 政府에서도 其便이 得策이 요 充分한 可能性도 잇는 즉 早晩 實現될는지도 알수 업스나 要는 鐵道網의 敷設完成에 잇는즉 우리도 只今 政府에 移管되야 本事業의 發達促進되기를 希望한다

# 私鐵三三二哩

十二月一日부터 朝鮮鐵道會社 廣南線 馬山 郡北間 及 京南線 洪城, 廣川間이 開通된 結果 朝鮮의 私設鐵道 開業線은 三百三十三哩五分에 達하엿스며 本年度의 開通哩數는 七十二哩五分으로 其 線路는 如左

朝鮮鐵道會社
滿州 甫安間 十四哩九分
咸興 長豐間 十七哩七分
馬山 郡北間 十八哩三分
朝鮮京南鐵道
禮山 廣川間 二十一哩六分

# 圖書館官制發表

三十日 官報에 勅令으로 朝鮮總督府 圖書館官制가 發布되얏는데 職員은 館長(奏任) 書記(判任) 各一人을 置하게되얏더라

# 辭令

高等普通學校敎諭 宇留島喜六
任公立高等女學校長
總督府 圖書館長 荻山 秀雄

# 消息

▲王正廷氏는 一行七人으로 더부러 卅日 午前八時 奉天으로 向하야 日本에 赴코자 出發 (北京電)
▲蒲原久四郎氏 (遞信局長) 九日間 豫定으로 二日 夜 平壤, 新義州 方面
▲深尾道恕氏 (殖銀理事) 二日 松峴洞 四九에 轉居
▲古橋友次郎氏 (帝國通信理事) 渡東中 一日 夜 歸京

# 米國와서

## 二

### 張德秀

兄님, 우리 民族은 十年동안을 엇더한 사람의 칼자루에 눌리어 코숨 한번을 크게 쉬어보지 못하고 우슴이나 우름한번을 제마음껏 하여 보지 못한 民族이 아닙닛가. 자지는 아니하나 자는 체를하여야 하겟고 죽지는 아니하엿스나 죽은체를 하여야할 境遇에 싸혓든 民族이 아닙닛가. 속은속대로 傷하고 火는 火대로 動하얏스되 그 火를 쓰라면 술집에나 가는수밧게 업섯고 傷한속을 곳치랴면 眞實로 精神病院밧게는 갈곳이 업는 그와 갓흔 民族의 여소이 가득하면 살림이 넉々하고 希望이 前途에 가득하면 엇지하야 속이 傷하고 가슴에 火가 動할것입닛가. 우리 나라에도 큰길이 뚤리고 銀行이 곳々에 서고 山과 바다에 몰켜는 소리, 고기잡는 소리가 요란하야지지아니한 것이아니며 法規와 秩序가 一府整然하야지는 同時에 우리압헤 칼자루 쥐고 선 사람들이 『幸福』 『發達』을 부르고 술잔을 난호게된것이 事實이 아닌것이아니나 그 背面에 그 反比例로 쫏겨가고 몰려가서 文字대로 『放逐』에 울게된 우리 朝鮮사람의 形便과 살림사리는 나의 스테리가 쓰며 대는것이 아니라 칼자루를 메고 우리압헤 선 그사람들이 日常자랑하는 統計數字가 밝히 말하는것 이매 더욱 말할것이 업소이다. 兄님, 이와갓흔 民族은 우리 民族이외다. 우리 同族이외다. 우리의 兄弟요 同氣이외다. 그 한사람이오 兄도 그 나도 그 한사람이외다. 朝鮮에도 勿論 잘사는 사람도 잇고 못사는 사람도 잇슬터이지오. 밥먹는 사람도 잇고 죽먹는 사람도 잇슬터이외다. 죽먹는 사람도 잇슴닛가 이 스며 비단옷입고 거적자리에 病들어 누은 어린子息을 가리워줄 ...

이 돌멩든것을 나는 지금도 生覺하면 兄과 함니다. 이것을 生覺하면 兄과 나의 사이에 다른 點에 잇서서는 엇더한 動機와 見地의 差異가 잇섯슬는지 아지 못하거니와 적어도 『東亞日報』의 事業을 通하야 『우리 民族에게 貢獻하야보자고』 하는 이 點에 잇서서는 조금도 다른바가 업섯고, 또 업는줄을 나는 確實히 암니다. 財政上 困窮한 環境의 逼迫이 이런것을 當할때마다 우리가 서로 激勵하든말이 무엇임닛가. 『우리 兄弟가 或은 죽고 或은 매맛고 우리는 敵에게 離散漂泊하매 하지못할지라도 東亞日報를 通하야 우리 民族 發展에 이슨 精誠을 기우려보자』 든말 이말이엿스며 이말을 울고 웃고 落心하든 여러 社員이 다시 붓더를 삼고 질거운 마음으로 가고 르든것이 或은 活字 가나 나는 지금도 이모든것이 눈에 환히 뵈이는 것갓소이다. 兄님 우리가 처음 맛나기도 東亞日報를 因하야, 맛낫고 우리 의 가슴에 깃븐 한줄기 光明이 잇섯든지 우리의 苦心과 鬱한 情을 噴吐하든 그때 가 아니며 희미하나마 우리의 抑鬱하고 抑鬱한 情을 조곰이라도 우리의 붓끗으로 噴吐하든 그때 이 아니며 그것은 이 兄弟 民族의 悲慘한 그것을 참아 볼수 업서 하는 한줄기 慰安을 어든것이다 하면 그것 發展의 光明이 잇섯다하면 東西로 奔馳하고 或은 工場에 機械를 돌릴때에 우리 얼굴에 깃븐 우슴이 피고 우리의 가슴에

리가 三年동안을 줄기차게 좌와오기도 東亞日報를 因하야 좌와온것을 生覺하면 우리 두 사람사이에는 이 東亞日報가 무 因緣이라면 엇지하면 迷信가 는 깁흔 因緣이 되는 것갓소이다 치도 들리고 엇지하면 엇던 宗教上 專用語가치도 들리지만 은 그 實生覺하면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이 因緣은 우리가 다가 치 朝鮮 사람된 因緣이며 그中 에도 우리가 處한 이 時代에 中 年이 되엿다는 因緣이 그 靑 가 가치 靑年이 되엿다는 因緣이며 다 가 우려보겟다는 因緣이며 自己의 忠誠을 그러한 靑年의 그 에서라도 엇지하야 그리되얏 든지 또 兄님 그러한 因緣이 되엿다 그리 親密을 사귀게된 因緣이 외다, 이 因緣의 奇異하고도 異常한 실줄 기는 우리 눈에 뵈이지 아니하는 김흔곳 여러 方面에 얼키여잇 는줄을 나는 生覺하며 아마 도 우리가 오늘날 朝鮮靑年의 處地 와 心理를 버서나지 못하는 以上 에 그 因緣의 실줄기는 依然히 우 리의 가슴을 通하야 우리의 行動 을 結束할것인줄을 암니다.

# 投稿歡迎

投稿規定 一行十四字 計算으로 六十行以內에 限함 ▲紙上匿名은 無妨하나 本社外지 氏名과 住所를 必要함 ▲皮封에는 「自由鍾原稿」이라 朱書할을要함

# 是非의是非

◇이 世上에 자미잇는 일이 업다 마는 잇는지는 몰나 그럿다고 네 가 第一 조와하는 자미잇는 일은 『싸홈』이다 그러하야 쫏기는 싸홈보다 큰싸홈이 더조코 多數사람보다 긴싸홈이 더조코 少數사람의 싸홈보다 만흔사람의 싸홈이 더 조흘것도 當然한 理勢이다

◇요새는 普成專門學校學生이 學校當局에 對하야 『싸홈』이 붓흘 맛추어 좀 섭々함이 不無하더니 ◇日本石川縣에 이러난 宗納稅問題와 싸홈과 日本郵船會社의 船員과 出來해 陸上勤務社員의 싸홈 『싸홈』 도 자미가 無妨하거니와 普通學校 에서 이러난 微文高普 [illegible] 자미가 잇다 ◇이제 그 內容을 보면 校長退學問題이다 實로 微文高普 生校長等 人事問題가 [illegible] 싸홈의 中心問題이 엿든 것은 ◇싸홈을 조아하는 나는 이 『싸홈』이 速히 끗나지 안키를 祝하며 다 아는바이다

[illegible]

# 東亞漫話

投稿歡迎, 漫畫, 漫話 京城 無名氏

『京城府議選擧制의 三原素』

# 橫說竪說

◇東京의 地震火災中에 朝鮮人이 殺傷되엿슴은 [illegible] 結果로 日鮮人間의 融和는 『促進되야간다』고 當局者는 말한다. 얼마나 『促進되얏는가』, 數字로 表示하야 보아라. 同一한 當局者의 調査한바를 보면, 事件後 留日朝鮮人의 歸還者가 무려 三萬五千人 ◇朝鮮과 滿洲는 『殖民地』가 아니오 『領土』라한즉, 日本東京 者의 視察感想이라든가, 그야 말로 『識字』가 憂患이 ◇驛長이나 車掌에게, 警察官을 주라면, 『法律의 智識』을 가르켜 야되겟다고, 京鐵局에서는, 각 청이라든가 『普通驛務員養成』 難犯이라』 할만한 常識만잇스면, 넉々하지 ◇總督府에서, 北九州在留朝鮮 人救護會를 設立할 計劃인데, 各種勞働運動團體와 交涉을 防 止함이 主要目的

# 너희들은무엇을어덧느냐 (97)

### 廉想涉

(第編) 七ㅣ六

이와가튼 복잡한 생각이 머리에서 매암을 돌면서도 오늘밤에 자긔를 기다리고 머리ㅅ맛경대 염혜서 눈을 깜박어리며 안젓슬 도홍이의 거동이 눈에 아른々々 하는것가타얏다. 땀이 질쩍어리는 줄다란 길을 철벅어리며 가는 명수는 얼이 싸진사람가치 다리 각々 머리각々 노랏다 비호가치 날아가는 자던거와 압뒤에서 예소리를 치며 달려들고 굴러가는 인력거 박휘에 몃번이나 부드칠 번하얏다 그러나 머리ㅅ속에서는 『말을 아니하야보면 어떡할까?』 하고 책망을 하얏다.

『어떡할가?』 ─ 명수는 주인 의 얼골을 먹々히 바라보다가 체 절심을 하지못하고 『실상은 ……』하며 히붑 우에 덥허 노흔 돌집다란 가죽모자리를 한 장부우에 눈을 던지였다.

『아모리 재계 가 제 하기로 원이나 밀 때 오시겟는 데 이 업다 고 할가?』 ─ 이런 생각을 하며 주인의 재떨 어 엔 보다가 생글々 우스며 사람의 얼굴 을 쇼탐으로 드리다 보는 그 눈 을 박 이 드 를 그 러 다 보 드 는 一日 본 에 갓 다 온 다 는 『 나 가 다 가 노 는 피 게 로 』 리 비나 킹 할 터 이 지 ? 하지만 지이 업 사 [illegible] 『 아 마 』 나 『 도 로 』 이 라 도 이런 ...

명수는 눈이 화끈거리고 머리 속이 휘번복이 된 것 갓더니 다 귀가 멍々하게 들리고 ...

그리나 뒤부터의 수하 이라든지 그러한 일보다도 우 리 가 만나고 ... 

# 日曜號의廢止와 月曜欄의新設

從來 毎日曜에 發行하든 日曜號는 紙面改新에 伴한 編輯上의 形便으로 廢止하고 月曜日의 本紙第四面에 『月曜欄』을 新設하게 되얏스며 日曜號와 가치 讀者의 作品을 만히 紹介코저하오니 또한 繼續하야 投稿하야 주시면 多幸이겟소이다

東亞日報社

米國製獨逸製

スケート 氷上스켓트 의御用意는

樂器와 運動具

가다로그 無代進呈

京城鍾路八十七番

米國製 1號 2號 獨逸製 1號 2號 [illegible]

錢十四個付에 每月金額小口以內

米國貿易 輸入元 セヤマ洋樂器店

仁寺洞光化門 振替京城一〇七五六

プロチン 프로친

新鎭咳祛痰劑

適應症 急(慢)性의 呼吸器疾患으로서 咳嗽喀痰을 伴하는 諸症及 百日咳。

發賣元 東京市 三共株式會社

(D—1)

▲撫順炭과官製煉炭은 特約店 三國商會

京城驛 ミクニ貯炭場

▲現場現金賣는 특별히 싸게드리오

直輸入精製와 正價都散賣는 元豊號

營業科目 毛物各種 족기各種

地方注文에 는 代金引換함

▲理髮機具販賣大擴張▲ (地方注文迅速)

▲外面刀其他附屬五品無代進呈

大特價提供

大工道具 各種金物商 吉元村筆吉商會

十八圓六十錢 二十八圓六十三錢 二十八圓五十九錢 二十八圓四十五錢 二十八圓五十一錢

# 멀정한사람을 遺傳白痴로診斷

## 巨萬富豪를中心으로 奇々怪々한秘密黑幕

### 안해로서남편을검치산신립 괴상한수진의관의정신진단

### 警察의旅劵交付拒絶은何故?

일천오백여석 추수를받는 재산가 김하진(金夏鎭)(二一)씨를사이에 넣고 여러가지마의손이 얼키어 별々가지 괴괴한사실이 숨어잇다 지난녀름에 시내숭이동(崇二洞)일백오번디 그의집에서 돌연이 불이나며 상당한 돈이 노핫든 현금이 업서젓다 그사실을단서로 소관동대문서에서 수사한결과 그집 청지기가 주인의 순직한 것을 호긔로 돈을훔치어 내려고 그가존것을 한것이 판명되얏다 함은 아즉도세상에 긔억이새로울터이다 본시김하진이라는 사람은 런청이 순직하야 그부인홍인식(洪仁植)(二九)에게 눌니어지내는편이 만한듯한바 이것을 한호긔로알고 홍인식은 십여년전부터 행동이 순탄치못하며 여러번 그남편에게 낫븐긔치욕을 보히게하고도 오히려 후회하지아니하고 요사히에와서는 김하진의 매부가되는 리언승(李彦承)(三七)과부동하야 맛츰내 총독부병원 정신과의 수진의관(水津醫官)에게 김하진을 유뎐성백치(遺傳性白痴)라는 진단을받아 경성디방법원에 검치산신립(禁治産申立)을 데기하얏다 이경우를 당한 김하진은 기가막키어 즉시 복뎐(福田)변호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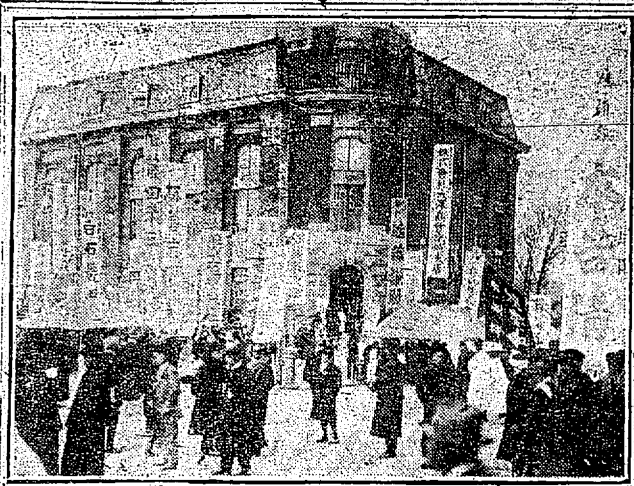
**반대신립** 을 데기케하고 즉시자긔는 중국봉텬(奉天)에 출장하야 텰도병원에가서 정신과당 이계당(一階堂)씨에게 아모의심업다는 진단을받아 오기에이르러 목하쌍방은 대립하야 바보라는 본인조차 매일원긔가 왕성히 검치산신립 반대운동에 오든터인데 재산분주케되는 괴괴한사실을 낫하나게한것이다 이에대하야 작월이십구일에 다시김하진의 정신상태를 조사키에이르러 목하심사를 진행중인대 사리를잘분간하고 희로애락에 대한감수성이분명하며 과연이 완전한사람에게 안해가된 사람으로서 검치산신립을하게 되기까지 이르기에는 괴괴한 흑막이잇는것은

**의심할수** 업는 사실일것이다 그뿐만아니라 안해가되는 그는 진단을나린 수진의관의과연 무슨생각이 드러섯든지 다시 가구주복강(九州福岡)대학 멀정한김하진에 유전성백치라는 으로 진단을 밧으려가라할뻐에 경찰당국에서는 려행증명을 주지아니하얏다하니 그것은또무슨까닭인지 재산문데에 관련된이 사실의내막에는

**별々비밀** 이 무수히복재하얏다는 한모양이니 사건의 진개를조차 흉은 큰의옥사건이 이러날지도모른다더라

# 穆陵縣 教育會의 경영하는학교

길림성목릉현(吉林省穆陵縣)에사는 동포들은자제를 교육하기위하야 사년전부터 교육회(教育會)를 조직하고힘써서 오든터인데 그회에서 관리하 케도를일신하고 력사교수에주중 는학교가중학교가하나이오소학교가여섯곳이엿섯다 근일에는그 회의회당으로서북만주(北滿洲)원대에 신용이만흔 항공산(項公三)씨가 중학교교당을긔입하게되얏스며 그후부터화룡(和龍)연길(延吉)등디에류리하던 쇼교육사업에 열심하든윤창현(尹昌鉉)씨가 교육부당(教育部長)으로새로선임되야교육방법을일층쇄신하는 중이며 특별이국수(國粹)에관한것 을주중하야력사의 교과서로는신단민사(神檀民史)를각학교에서 모다쓰도록 계획하는중이라더라



◇면방랑반의과거날—말성만튼 부협의원선거전이끗나서 남대문동이 쓸々하여지자 작일은상업회의소평의원 싸홈으로 돌울물거리가 번창하게되얏다 쌀々한오전아홉시부터 싸홈은시작되야 허덕지덕달려드는무리가 밀리는통에문간에서 일보든미인의손까지함부로밟어서 한겹풀아총바람에봉々언숭에 싸인한피방울까지떨어지는 맛이고맛업는인긔극가지도연출되얏다 사진은 미인의피가업어부튼 상업회의소의혼잡한문전

# 生活困難과退學

### 형데여! 살기에눈을뜨라

◇『돈이업서々 공부를못한다!』하는말은 우리가 이제처음듯는말이 아니요 부형의부형때로 자뎨는자데대로 만히경험을하여온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작지보면에보도된『경성부내보통학생의 퇴학상황』을 보고서 다시한번새삼스럽게 놀라지아니치 못하겟다

『돈이업서々공부를못한다!』

◇그러나 우리의놀남은—다만경성부내에서 매년백오십명의 보통학생이학비곤난과 생활난으로 퇴학을면치못한다는 한가지사실에대한 일시뎍의놀남이아니다 우리는 전조선의보통학교학생중에 매년이와가튼 운명을당하는아해가 얼마나되는가 퇴학은고사하고당초부터 입학도 하지못하는아해가얼마나되는가함을생각할뻐에는놀나든몸에 소름이끼치는것을깨닷지아니할수업다

◇『돈이업서々공부를못한다!』함은 이사회 이케도아래에서는 면키어려운사청일것이다 그러나 우리는이케한거름더나아가서『돈이업서서 아해들의생명을일는다!』는지경까지 생각하야보고자한다 이는일부러생각하야볼 여디도업는바이다 현재우리의눈압에 생활곤난으로—영양부족으로 매년수만은아해가 비명에죽는참상을 보는바아닌가 아! 이엇지단순한조선 사람의비참사이리요! 인류의 눈압헤버여노흔 중대한문데가아니랴?

◇사랑하는형뎨여! 볏날청인의말슴에『평화하고남어지힘이잇거든 학문에나아가라』하얏거니와 이제우리는『살기위하야는 먹을것를하지아니하면 안된다 먹고남은힘이업스면 공부도할수업다!』는말을다시한번웨치려한다 그리하야공부보다도 먹기에살기에 눈을떠야하겟다한다

# 電氣事業을府營으로

### 새로선거된협의원들의의견

말성만케 선거한 경성부의신협의원(新協議員)중에는 경성부의 새로운사업으로 경성면긔회사(京城電氣會社)를매수하야 면등(電燈)면차(電車)와 까쓰(瓦斯)와 동력(動力)등의사업을 모다부민의 공영으로하려고 의론이잇는데 그는 회사의공당한일이 안이라 부영으로 경영하는것이 부의

**재원** 을 느리는 방편으로든지 더우일반부민에게 편의를주는등 여러가지로 필요할뿐만아니라 현재의 면긔회사는 슈권한영리긔관인우에 호자하는 탓에 여러가지 아름답지못한폐가만흠으로 갓가운장래에는 반듯이실현하여야할것이라하고며 구조사를시작한다는데 원래면긔회사는 한미면긔주식회사(韓米電氣株式會社)로부터 경런으로 한국정부(韓國政府)에서 허가할때에는 허가한날부터 만삼십오개년와 사는 이십오개년을지나서 만일

**정 부 에** 서필요타 인뎡할때에는 시가(時價)대로 권부를 매수할수잇다는 조건이잇섯는데 당시허가하얏든 광무십일년(光武十一年)六月二十七日로 지금까지는 만십칠개년밧게 아니된다더라

## 貫行은不能이나 연구는한다고 京城府尹談

이에대하야 경성부윤의 의견을 드른즉『물론그와가튼사업은 공々단데인 부에서 경영하는것이 온당한일이나 지금회사에서 팔기를 즐겨하리도업고 설혹판다고하더라도 현재그회사의자본금만하더라도 일천오백만원이나되는데 현재부내의 재정상태로는 불가능한일이니 연구는 하여볼일이외다』하더라

# 外刑論告바든 姜鎭乾의 판결언도는 오는오일에

북간도(北間島)에서 일본밀뎡을 살해한 사건으로 청진디방법원에서 무긔징역의 선고를밧고 공소를하야 경성복심법원에서 검사의공소가잇고 피고역시공소하야 경성복심법원에서 검사

# 債務履行을하여도

### 담보물을팔앗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 覆審에선原告로

본리(本里)에사는 권덕렬(權德烈)과려주(驪州支廳)에서재판을하다가 필경은패소를당하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를데기하엿다 이케 그권목중 권덕렬의 주장하는바에 그채무를갑지못하고 ……

**담보하고** 금일천아백원을 간륙월구일에 그채무에 대한리는 원고는공탁할것이업시 현금을만드러 피고는 그흘립을 ……

# 鷄龍山記【二】

## 金鷄抱卵、雙龍弄珠 『鷄龍山』의出處

### 동학의주인만우로화상 공경할평생의신앙생활

서울서고경스님헌테어데오느만 『우로화상』에게 부치는소개장은 크게 힘이잇섯다 『팔십이나 넘은 어른이지마는 긔운조코친절하고 학식도만흔신이지오』하는 것이 고경스님의 만우로화상을 내게 소개하는 말이엇섯다

**점 심** 을 식히고 커준버섯울같아신고 털々날리는 랑엽울바라보고 안젓슬즈음에 만우로인이 들어왓다 백발동안에혀색양복두루막이넘는 건장한로인이다 누가보아도 여순압은밧게 안되여보이건마는 그는팔십넘흔아홉이다

**인 사 가** 씃난후에 그는 『소승이아는대로는 무엇이나 다 말슴해듸리겟슴니다』하고 극히공손하고도 쾌활하게 내가 무엇을뭇기를 기다린다 『계룡산이란 일홈은 언제누가지은것입닛가 또웨 계룡산이라고햇나요?』나는 이모양으로 뭇기를 시작하엿다 로화상은풍장한목소리로 아주 류창하게설명한다

**계 룡 산** 이란일홈은언케누가 지은것인지 소승도알아보려고햇스나 아는이가업고 또 어느책에도 나온데가 업습니다

그러나가 산의흥쥐는 말수가업사옵고 계룡산이란뜻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말이잇서서 어느것이 올흔말인지 소승도알수가업습지오 허、허……흐흔 산이생기기를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이란 금닭이 알품는격이라해서 닭계(鷄)자를쓴다고도하고 또『쌍룡농주형(雙龍弄珠形)』이라 그래서 룡룡(龍)자를 쓴다고도 합니다

**여 의 주** 를 어르는격이다하야 룡룡자를 쓴다고도합니다 지오 또 제화위룡격——닭이 화하야 룡이되는격이잇서 계룡이라고한다 말하오면 금계포란이라는 닭계자와 쌍룡농주라는 룡룡자를한데 부쳐서 계룡산이라고한다 말하야옵지요 걸々웃는다 이모양으로 로화상은 동학사의 연긔、오누이탑、숙모뎐、삼은각、감사、대궐터、련런봉등 계룡산에 관한모든니야기를 뭇기를기다리지도 아니하고 한시간반 동안이나 내리하엿다

**소 승 이** 아는말슴은 다 했습니다 그밧게 더무르시는것이잇든지 또소승이 생각나는것이잇스면또말슴하겟슴니다……소승이 갈것업시 가서 시장하시겟슴니다……애 상 들여라……

**하 나 도** 짓는것이 업고 꾸미거나 감촌것이업고 가장 흠이나된로인이라 할라진실로괘활하고 솔직하고 친절한철은친라더라 (一記者)

# 富山市에怪露人

### 불온선전의혐의로데포

대판부경찰부 외사과(大阪府警察部外事課)에서는지나간 이십칠일에도변경부보(渡邊警部補)가부산시(富山市)에출장하야그곳관헌의 응원을엇어가지고 모인의 자최를엄탐한결과 엇던로서아사람두명을발견하고 부산경찰서로다리고가서 비밀리에 사실을 취조하는데 이케그사건의 내용을들으면 그들은대략 반년젼에일본에와 잇다가동경에 진재가잇슨후에 모불온한 선전을하랴고 동경경찰당국에서 그의자최를탐지하든바 일본에 와서모모와만나보고 그후에 또자최를감초앗슴으로 대판부경찰부외사과에서는활동을개시하야 그들이부산시에 잇는것을 탐지한결과 그들의 간곳을 탐지한

**조사하라** 는 명령이 대판부외사과에도 잇슨고로 필경은활동을하엿스나 그사건의자세한내용은 알수가업다고 말하더라(부산면보)

# 元山女高建築請負關聯의 不正疑獄事件

### 관계자심사명을검사국에

그보한원산(元山)고등녀학교건축 사명에관한 서류와 구류중이든 축시에 청부업자와 관변의유력 자간에 뇌물을수수하얏다는 피의사실은 소관원산서에서 그간엄밀한 취조를진행하야 임의데일회 취조를맛치고 관계자심 명을 검사국으로 압송하얏는 데대이회 취조중에는 필경원산 부령에까지 검거의손이 밋칠듯하다더라(원산)

# 鎭南浦火災의 損害額四萬圓

### 원인은아직불명

지난이십팔일오후열시경에진남포신흥리소(鎭南浦新興里)하에서 불이이러나서동회출장소(東拓出張所)와조선은행지뎜

이 연소되엿다함은 임의보도한바어니와 손해는백미칠백석 현마이백석 조이백석 기타기계창고가권소되야손해는약사만원가량이라하며 원인은 아직자세히알수업스며 동심이시에 진화는되엿더라(진남포)

# 永化學院을爲하야 俞鎭泰氏의篤志

충청남도당진군범천면(忠南唐津郡泛川面) 영화학원(永化學院)으로설립된이후 교육계에만흔공헌이잇섯스나교실이업서곤난이막심함으로 동면창리류진태(同面倉里俞鎭泰)씨가 돈삼천원을긔부 건축비삼천원외에 매월팔십원씩자담 이배이라 혹은 조선독립단이나 동을개사한것 이라는데 내용은 비밀에부친다더라(덕천)

# 獨立團襲來乎

### 평남덕천의경계

수일전부터 평안남도덕천 경찰서(平南德川警察署)에서는간작히긴장하여지며 다수한 경관이 무장을갓추고 모방면으로 출동함으로 일반은또무슨 큰일이나 생겻는가하고 인심이 동요되야 는데 탐문한바에의하면 덕천군 풍덕면송뎡리(德川郡豐德面松亭里)와동군잠도면대평리(同郡蠶島面大坪里)에 멋칠전에 엇던 수상한사람 몃명이 출몰한다는 급보가 잇슴으로 시국이불온한 이때이라 혹은 조선독립단이나 오지안엇는가하고 그와가치 할의칭송이만타더라(덕천)

# 總督을엇지한다는風說로

### 경계엄중하든대동강철교도교식

지난삼십일은 평양(平壤)의대동교(大同橋)를 처음으로건너는날이다 재등총독(齋藤總督)의부부도다리를 건너볼작뎡으로 전날오후두시에 도착하얏는데 돌연엇던조선청년몃명이 폭탄(爆彈)을 쥐고평양에드러와 엇던시간에 엇더케한다는발이류행되야 평양 각경찰관계당국은 물론이요 헌병대(憲兵隊)에서지혹은무장 혹은사복으로삼십명세벼부터 대동교부근을 텰통가치 에워싸고경계하기를 시작하얏다 대동교부근에는 다수한 군중이 또한모혀서 과연무삼구경거리가 생길듯하게 한참동안 소란하게되엿는데 데일시부터시작한도교식(渡橋式)은 별탈시반이넘도록 맛을맛추고총독일행과 그외래빈이 다리를건너갓더라 재등총독이 압흐로 강병옥(康秉鈺)씨외 여려사람이 뒤를이엇스며 그후에 경관과 군인들이 다수히따라 건너 갓는데 엇지 아모일은업섯더라(평양)

===사진은도교식광경===

# 札幌大火

### 百餘戶全燒

(北海道札幌市分地第三)요리뎜고교의점(高橋兼吉)의 집에서 불이나서 백오호가 연소되야재만남고 사방자도 이십명이나잇섯는데 원인은 북해도사중이라 여섯명이라즉어 오후아홉시 사실분경 던라(삿뽀로뎐보)

# 독긔로海底線斷絕

### 일시동양방면의통신이두절 일천『썰라』상금으로범인수색

미국마 동양방면의 유일의통신긔관인 면선흠집한 범인에게 부근에 여지가여 닛슴나 위하야 일천『썰라』의 선흠을 거럿다는데 이로인하야 회사 면의손해는 십만딸라 가량이 나된다하며 이로인하야 동양방면에관한통신은 아주두절되엿다 더라(상항뎐보)

# 가든汽車가墜落하야

### 重輕傷者十六名 일본상송디방에생긴착사 朝鮮人一名도慘死

지나간삼십일 오전비시경에 장야역(長野驛)을떠나 명고옥(名古屋)으로가는 데칠백류렬차가 상송(上松)복뎡(福町)사이에잇는사천(寺川)철교를지날때에 『케도뎜』에잇는 『마일』주뎐허커서 긔관차와 삼등객차한채는느장한 소리를내며 그만뎍심간가량이나되는 천교아래 떠러키 긔관수와 조수세명이즉사하고 객차에서는 조선인승객한명이 즉사하얏스며 그외십륙명이 중경상을당하얏다더라 (명고옥뎐보)

# 保安課에 重大犯人

### 사건은확대될듯

요사이경긔도 경찰부 형사과에서는 보안법(保安法)위반에 대한 모중대범인한명을 데포하고 방금엄중히 취조중이며 그럽사다만 긔회에다 한취데는 중요서류를 압수하고 ……

# 竊盜頻頻

### 백주에

관장을까치고드러와서 갑진물건만훔쳐간도적 얼마전 명화뎡신관사(太和町遞信官舍)를 알틀히 뒤지간 도적도 잡지못하야 재작일정오에는 남산뎡총독부관사(南山町總督府官舍)에 또도적이들어가서 현금 백원을 비롯하야 시계반지『테』다이핀등 갑진물건만 열한가지를 모조리훔처가지고 도망하얏는데 피해자는 삼호관사에들어잇는 총독부회계과속 좌등식(會計課屬佐藤殖)이라하며 도적은 리웃집사이에잇는 관장을 뒤어온모양인데 벽에 이처판장까지쌔트리고 들어온 이 근래에 드믄일이라더라

# 新葉書의特色

### 배달신속을도모한다

주소씨명란을만들어 금월중순경에 조선에 새로히도 착될 새엽서는 특히 바더보는이의주소와씨명을 긔록하는 란을 나와서야 단이엇다나 현병하는 지뎡하야서 배달의신속을 도모하게되엿다더라

# 吳福泳의公判

### 오는칠일에개뎡

의렬단(義烈團)의 일원으로 경북군위(慶北軍威)주(舊北?)로 고소 고소를하엿든 ……

## ◇휴지통

▲종로청년회관에서는 금이일 오후세시에 신자의로(信者의路)라는문대로 최청모(崔昌模)씨가 강연 ▲조선금만주사(朝鮮及滿洲社)주최 와실업청년회(實業靑年會)에 로금이일오후륙시 에부 천뎡 공회당에서 조측선전강연회(照明宣傳講演會)를연다고 ▲몃칠래로 털도가격증 이만하 ▲일반가뎡에서는 흔히주 된다 ▲금일오후 륙시에 의할일이다 ▲조측강연회 당곡천뎡공회당에서는조측강연 회가 열린다한다 ▲조측 도쫓치마는 커그번 팡도에조측 랑독식인가 강연회에 파겨뎡된 의 야단난것을보면 ▲조선에 도조 마음이나노히는일인걸 무 사하엿스면 조켓지만▲ 재작일 평양에서 열린 대동강텰교개통 식에는 폭탄을가진자 객이 재등 영감을엇겟다고해서 현병과지 나와서야 단이엇다나 ▲화룡도에 서쏫진조조가 나무그림자만 보아도▲상산 조자룡의 칼웃인가 의심한다더니 ▲어떠 갈뤄마다 그렇케 가슴이 두근거리어서는 보는사람도좀미안한걸

## ◇그럼리야 잇겟습닛가

자긔가 취임이매로는 아모조록 여럽분의 편의을 도모드리기로 복무규측을 삼는데 그럼 자로가 잇슬닛가 뭐라면 다만 전화에대한취데는 종로서 보다도 상부의명이 하도잇다 만으로 안보힐 자긔의마음에만 소용 잇는가 업는수 잇는데가 만소 흔히미 …… 을에 하시요 아모조룩 수속 지라도 방참하야 주시요 아모조록 신속히하도 에대하야서는 더욱 록 힘쓰겟소

## 不平

投稿歡迎 不平은覺例에限함

### 좀더친절하게

◇종로경찰서 관내에서는 도로 리(?) 가서 전화에대한수속이 늦고 편해가 친절하게하는데 수속이 늦고 도 쥬지 아니하는 일에는 좀더 신속하게 하여주지 …… 로 작정하엿다더라

### 종로서장의대답


●堅固無比 ●體裁優美 ●價格低廉 ●永久使用 ●第一高尙 ●本品에特 ●典이오다 本特價品은個數制限이有함을以此機를勿失하시고至急注文을爲要 製造元 京城府鍾路二丁目 東洋商會

好評噴々 御用命을 模範的贈品 ●自祝紀念發賣一千個ニ限ス ●美麗手帳一卷贈呈 ●時價三圓內外의것 大特價 壹圓七拾五錢 他에比類無한大特價提供品

李王職御用 眞油 太油 水油 其他一般 植物性油類 京城府齋洞八八 漢城製油所 電話光化門一一五二

京城府鍾路 …… 大田藥令事務所 오시요四海顧客은

開 市 令 藥 田 大
開市陰十二月二十六日 開市陰十一月二十六日
交通의便利도大田 南鮮의中央도大田
諸般準備를擴張 引換取扱을迅速 來客의便宜를爲하야

六〇六號 代用內服藥
梅毒新藥 ヨートカリ丸
販賣所 京城光化門通 博愛堂 電話光化門八九一六

各種毛物鞋貝帽子를 精製하와特別廉價로 販賣함 京城鍾路二丁目 萬品商店 主 申泰榮 毛物販賣 主務 張鎭奎 (地方에는代金引換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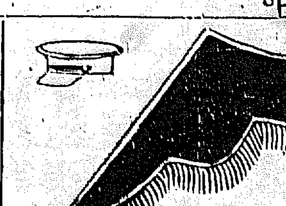
玉山醫院 治療科目 內科 外科 小兒科 花柳病科 齒科 電話【二○九】 入院便利

京城 大陸고무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社長 李夏榮 我고무鮮 靴의元祖 同會社販賣部

新着船來스게트!! 輕快한獨逸製 堅固한米國製 京城府堅志洞三二 三光堂

世信洋襪所本店 大邱府京町 主任 車永順

好評書類 七版 時文讀本 四版 朝鮮文典 三版 海棠花 五版 불상한동무 신교 수호지 再版 偉人元曉 京城府黃金町二丁目一番地 新文館



# 京畿秋蠶成績 比前年增加

京畿道管內에在한本年秋蠶飼育戶數七千六百四戶蠶種掃立枚數九千三百十三枚收繭額二千百七十五石으로此를前年成績에比較하면飼育戶數三百七十八戶掃立枚數千七十三枚收繭額八百九十二石의增加라하며蠶種一枚의收繭高는平均二石三斗四合의比例라더라

# 光陽小作聯會 强硬한決議事項

全南光陽郡小作聯合會에서는去二十八日에臨時總會를開催한後決議事項은左와如히하고따라서告文을作成하야各地主와小作人에게配付하엿다더라

決議事項

一, 濫收한小作料는無効로하고更히四割以內로調定할事

一, 地稅와公課를換算하야小作料에包含한것은一切廢止할事

一, 小作料運搬은十里以上은不應할事

一, 地主로부터右條件을履行치아니하면歸正할써까지小作料를不納할事(順天)

# 稅務所建築으로 長淵郡民의活動

明年度稅務署施行에對하야長淵, 松禾, 殷栗三郡稅務署位置는本郡으로道에서指定함으로同署建物은新建築하라고建築組合을組織하고建築費는一萬三千圓으로하야各面에分擔케하얏는데長淵面에六千圓外十面에는七千圓으로承諾하고組合長吳宗錫氏指揮下에서方今集金中인바月內로完了되리라더라(長淵)

# 安岳品評盛況 出品點數五一九

黃海道安岳郡에서去廿四, 五, 六三日間農產及畜產物品評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한바와如하거니와마참日氣가不順함에도不拘하고觀覽者는約四千五百餘의盛況을이루엇스며出品點數는五百十九點이오一等受賞者는如左하며特히畜牛一二等受賞者에게는中牛一頭式賞與하얏더라

◇一等受賞者(一等外는除함)

種別 白米 米 豆 麥 棉 牛 鷄 草 ... 姜崔李安李柳黃崔鄭安林金朴任氏 ... 名辰希根玉根鉉奬俊鎬澤錬煥熙 (安岳)

# 靈山에도四割

慶南靈山校里地主辛泳徽氏는當地의相當한財產家인바今年에自己所有土地의小作料는四割에不過하야該小作人들은喜悅不已하며同城內里地主秦泉寺(日人)氏도亦是自己所有土地에對하야는地稅及公課金을當初부터小作人의負擔으로하지아니하엿슬뿐아니라今年小作料도擧皆四割에不過하야當地小作會에서는右兩地主에對하야特히優長地主로待遇한다더라(靈山)

# 南部鐵道調査 鐵道部工務課에서

朝鮮總督府에서는南鮮地方에敷設될鐵道線路를調査키爲하야鐵道部工務課長新田技師一行은左記日程에依하야目下視察中인바去二十九日은全南麗水港에到着되엿다더라(麗水)

| 月日 | 出發地 | 經過 | 宿泊地 |
|---|---|---|---|
| 一一,二五 | 京城 | 三浪津 | 馬山 |
| 二六 | 馬山 | ― | 晋州 |
| 二七 | 晋州 | ― | 河東 |
| 二八 | 河東 | 光陽 | 順天 |
| 二九 | 順天 | 麗水 | 順天 |
| 三〇 | 順天 | 筏橋 | 寶城 |
| 一二,一 | 寶城 | 綾州 | 光州 |
| 二 | 光州 | 南平 | 光州 |
| 三 | 光州 | 和順 | 同福 |
| 四 | 同福 | 樂安 | 筏橋 |
| 五 | 筏橋 | 寶城 | 長興 |
| 六 | 長興 | 右水營 | 長興 |
| 七 | 長興 | 水門浦 | 長興 |
| 八 | 長興 | ― | 榮山浦 |
| 九 | 榮山浦 | ― | 木浦 |
| 一〇 | 木浦 | 龍塘里 | 木浦 |
| 一一 | 木浦 | ― | 光州 |
| 一二 | 光州 | ― | 南原 |
| 一三 | 南原 | ― | 全州 |
| 一四 | 全州 | 裡里 大田 | 京城 |

# 畜產費問題로 雙岩面民不平

全南順天郡雙岩面에서는畜產費라는名目으로面民에게全部金四圓을面事務所에納付하면面事務所에서는農牛一頭를購入하야畜產費納付者에게交附하면農牛의交附를바든者는九回에分하야一回金四圓式을面事務所에納付하라는面吏員의勸誘에依하야該面新星, 月溪, 九江, 道亭, 西興等各里人民數十人은本年六月分에畜產費로四圓式面事務所에納하얏스나面事務所에서는尙今까지農牛는커녕畜產費도내여주지아니함으로面民中에該畜產費는返還하여달나고面當局에要求한즉書記는會計員에게推托하고會計員은面長에게推托하야畜產費도내여주지아니함으로該面民들은이에한일음은面民을欺罔함이아니냐고非難과不平이매우甚하다더라(順天)

# 江界에學校新設 校舍도近日竣工

平北江界郡漁雷面에는從來로學校가업서서一般面民이遺憾으로생각하여오든바昨年十一月頃에面內有志安河龍, 田祥禾, 李宗敏, 金信京諸氏가發起會를組織하고極力努力한結果一萬三千餘圓의寄附金을募集하야今年四月부터校舍新築에着手하야校舍는近日에竣工되엿슴으로今年內로開校할預定이며學校認可는方今道當局...

# 平壤火災損害 今年에二十萬圓

平壤府內에對한火災의度數와損害額은逐年增加하는模樣인데昨年今年의度數와燒失戶數及損害額을示하면如左

| | 火災度數 | 燒失戶數 | 損害額 |
|---|---|---|---|
| 昨年度 | 七二 | 一九二 | 四五,一二〇圓 |
| 今年中 | 八八 | 八三 | 一九八,三二一圓 |

# 仁川貯金成績 比昨年倍增加

仁川郵便局에서例年에依한貯金宣傳데이를十一月二十六, 七, 八三日間行한바其成績은總口數一千四百九十一口로그中新加入口數는五百十七口金額總計는六千七百五十二圓인바此를昨年에比하면約倍의增加를見케되엿는데口數로는三百二十口新加入者는十三名口金額으로는二千七百四十八圓이增加되얏더라(仁川)

# 順天婦人夜學

全南順天郡에서는婦人夜學을去月二十一日에順天公立普通學校內에開催하엿는데當夜出席은甲組에二十八人乙組에六十八人이라하며期間과科目과講師는如左

▲期間은四個月▲科目은朝鮮語及漢文算術日語▲講師는金...

# 朝鮮史槪講(六) 社友 李丙燾

第二篇 中古史 (高麗朝)(續)

第八章 麗元兩王室의姻婭的結果(續)

(四)瀋王暠의忠肅, 忠惠二王廢出運動(續)

이때는高麗에서뿐아니라元에잇서々도多年, 外征, 內亂으로財政의紊亂을招致하고또帝位繼承의際에는紛擾를生하야權臣은그間에跋扈할機會를엇게되얏섯다. 그리하야元(七)武宗時에는脫々이權을弄하고, 다음仁宗英宗(八代九代)時에는鐵木迭兒이勢를밋고貪虐하엿스며그義子鐵失(테치)는英宗을嗜弑하고世祖(忽必烈)의曾孫泰定帝(十代)를세운後, 未久에誅斬되엿스며, 文宗(十三代)에는燕帖木兒(엔테무르)이策立의功을밋고右丞相이되여國政을專擅하고, 最後의順帝(十五代)時에는伯顏(배안)이丞相이되여政權을秉擺하얏섯다. 何如間이때元室에잇서々나麗室에잇서々나다서로平行的衰運의徵을밟을때엿섯다.

忠惠王은일직이世子로元에잇슬때에元丞相燕帖木兒와매우親하야그政敵伯顏과는自然사이가조치못하더니이번廢位를當하야元에再徙함에及하야는燕帖木兒이이미죽고伯顏이得勢할때라忠惠王은伯顏에게더욱冷淡한待遇를밧게되엿섯다. 忠惠王은그後五年에不謹愼的行動으로因하야元에서本國으로逐歸를當하고또그後三年忠肅王이昇遐하야...

[illegible]

# 平南普天總會 平壤에

잇는普天教平南眞正院에서는去廿八日午後四時同院內에臨時總會를開催하고教務進行方針其他를協議決定한後趙東雨氏의講演이잇섯스며舊職員李世柱氏를除한外全部를改選하얏고產業獎勵의機關인普光社의創立도速히實現할터이라더라(平壤)

# 醴泉水災義金 過般西鮮各地의慘狀을接한醴泉青年會醴泉佛教會醴泉耶蘇教會朝鮮日報醴泉支局東亞日報醴泉分局等團體에서는罹災同胞의救濟에萬分의一이라도음기爲하야若干의同情金을募集하야去二十七日京城에在한西鮮水害救濟會로送付하얏는데同情人士는如左

▲三圓式吳喜範崔秉杆▲二圓朴泰庸金顯台金鳳植無名氏各二圓▲洪文植吳貞子女史金甚昌姜友錫申淵雨閔泳允李相德朴恩培朴永來張英姬女史李載和金珀煥孫鳳九各一圓(以下略)(醴泉)

# 青山講習消息 黃海道

殷山郡西鍾面禮老里耶蘇教會에서入學難을救濟코자同敎會堂內에青山講習所를設立하고兒童敎育에盡力하는바座席이不完全하야冬節마다冷氣를不堪하든中今般該面洞役所와特約을하고男女教友와同講習所生徒가合力하야空俵一千五百枚를製作販賣한收入金一百五十圓으로爲先『마루』를敷設할터이라더라(沙里院)

# 德川水害義金 平壤及

其附近水害罹災同胞의게同情하야本社德川支局에보내인水害同情金의寄附人士의氏名과其金額은如左

▲金九圓八十錢德川警察署職員一同▲金一圓六十錢池滄雲任京俊高碩煥高碩祚全炳厚徐光學張景楚李學泳(德川)

# 女子巡劇盛況 朝鮮女

子教育協會南鮮巡劇團一行은去廿一日槐山에到着하야當地青年會와東亞日報社槐山分局後援下에當夜에演劇과舞蹈를興行하엿는데滿場人士의熱烈한同情과無限한喝采中에盛況을呈하엿고當日入場料가四十餘圓이며同情金이六十餘圓인바同情諸氏의芳名은如左하더라

▲李鐵金十圓▲柳文桂五圓▲洪元植沈萬石金相瑨無名氏各三圓▲金相赫朴根陽金永奎宋彥燮申綺休金瑞應李愚定柳正珪崔在益...

# 四割地主日增 全南順

天郡雙岩面新田里金在河氏는該面內地主中一人인바地稅와公課金에對하야는昨年부터自己가負擔하야오며本年秋小作料에對하야는該面農民大會各區域委員을立會하고四割以內로調定하얏더라(順天)

# 保寧水害救濟 本社保

寧分局에서는西鮮水害救濟金을左와如히...

▲三圓熊川面水芙里振興會▲二圓式金雨植, 白樂濬, 結緣忠治▲一圓式白南振, 具滋恒, 黃昌顯, 沈宜秀, 任性淳, 尹明五(保寧)

仁荏, 李貞鎬 李東根 山田 시메노, 金貞 吉丸마스미 (順天)

# 道廳移轉完了 十一月

三十日에平安北道廳은新義州로移轉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同日午後一時에義州에서知事以下各幹部一行이出發하야도는電話로接한當府에서는放砲三聲으로그意를告하며一般府民은堤防上에建築한歡迎門을向하야나아갓는데酷寒暴風中에도各官廳과各學校는勿論이오一般府民이雲集하야無慮萬餘名에達하얏스며同二時二十分에知事一行이分乘한自働車五臺는無事히到着하얏더라(新義州)

# 利原車輛一覽 咸南利

原郡內에서使用하는車輛數와其稅額은如左하다더라

| | | 車數 | 稅額 |
|---|---|---|---|
| 一 | 人力車 | 二臺 | |
| 二 | 自轉車 | 八五臺 | 七九一 |
| 三 | 荷車 | 三臺 | 八八一 |
| 四 | 荷積車 | | 臺 |
| 合計 | | | |

右一個年稅額은「三三一圓五〇〇」(利原)

# 定原金組會議 定州에

新設된定原金融組合에서는旣報와如히去月二十七, 八兩日間定原金融組合評議員會를同組合內에開催하얏다더라(定州)

# 沙里院貯金日 京義線

沙里院郵便局에서는去二十六, 二十七, 二十八日三日間貯金데이를實行하얏는데取扱한貯金別은如左

| | 預入口數 | 預入金額 |
|---|---|---|
| 二十六日 | 一五六 | 一,四四〇圓 |
| 二十七日 | 一四四 | 三五七,二三〇圓 |
| 二十八日 | 一四〇 | 三五三,三三〇圓 |
| 計 | 四三二口 | 三四四,六六〇圓 |

今般貯金總計中朝鮮人만은一百六十三口이며預入金高가一百十三圓四十五錢인바人口比例로말하면더욱貧弱하얏다더라(沙里院)

# 定州救金分配 定州의

水害가慘酷함은旣報하얏거니와去番에京城西鮮水災救濟會幹部薛泰熙氏와朝鮮日報社員共二人이當地에來하야死亡一人에弔慰金各五圓式流失家屋一戶에救助金各二圓式의合計金額七百十七圓을分與하얏슴으로當地人士는매우感謝한다더라(定州)

# ◇青年其他集會◇

▲平壤各校聯合音樂 去二十九日午後一時平壤公會堂에서는大同橋開通祝賀를爲하야府內各女學校聯合大音樂會가有하얏는데二部二十一部를合하야二十餘種의音樂과童話歌劇等은殊로趣味가津々하얏다고(平壤)

▲平原個人庭球會 順川東亞日報社主催와本社順川分局後援으로平原個人庭球大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去二十五日午前九時에私立發信學校コ-트에서開催되엿는데申請組數가二十三組에達하야大盛況을呈하얏스며最後優勝은順川鎭陵倶樂部兪元浩, 俞元男兩氏에게歸하얏다고(順川)

▲西興校創立紀念 平原郡西海面私立西興學校에서는去月二十五日에第二週年創立紀念式을同校內에서擧行(德川)

▲安岳主日校施賞 黃海道安岳邑內幼年主日學校에서는每六箇月에一次式擧行하는施賞式을去...

# 許生傳(二) 長白山人 안성장

구월음을달 건섬배 안성장 …… 이런 사람들이 …… 사람 ……

[illegible]

# 質疑應答

一、(質疑는日常生活에關係잇는事에限함)

一、應答은總司本欄으로發表함

一、質疑는簽名에限하되必히宋時로…

[問] 本人의發父가相當한遺產을두고二十五年前에死亡하얏는데當時에그遺產은發祖父가管理하얏습니다그뒤發祖父도死亡한後弟即本人의叔父가發父의遺產을繼承하야自己名義로今日外지所有하고處分을하야왓습니다여기對하야本人이叔父에게發父遺產의引渡를請求할수가잇겟슴닛가(京城M生)

[答] 研究해볼問題임니다. 비록入籍前이라할지라도發父나, 或은發祖父가, 그財產을叔父에게讓與치아니한以上에는, 또는그러한證據가업는以上에는, 民法에잇는, 事務管理라는法則에依하야, 當然히그發父遺產의引渡를請求할수가잇슴니다. (辯護士朴勝彬氏談)

임의그叔父가, 戶主가되고또는相續을하고잇는以上에는, 조금研究해볼問題임니다. 日本의慣習으로보면, 到底히不可能한일이나, 朝鮮의慣習은, 그러치아니하니까, 그慣習을研究해보지아니하면, 確實한對答을할수가업습니다. 何如間어느意味로보아서는, 그遺產引渡를請求할수가잇슬줄암니다. (京城地方法院某民事判事談)

# 新刊紹介

▲햇발(童話雜誌創刊號) 이는開城에잇는童話會에서脫高發行하는月刊雜誌인데그內容은全部어린이에게有益한이야기거리로되얏다비록小型이나四十頁에定價三錢이라함은實로귀여운廉價이오該會當務者의誠意를엿볼수가잇겟다(開城南大門 嶽南書舘發賣)

▲新生命(十一月號)『哀愁의가을에서生命의봄으로』(田榮澤)『天下는惡平定고』(寥弼近)『改造의根本意』(劍山人)『朝鮮教會의一大危機』(蓼適)等年先金四十八錢

▲『朝鮮教會의一大危機』(蓼適)『朝鮮基督教彰文社發行, 定價三十錢』(京城仁寺洞八四 朝鮮基督彰文社)

◇地方人事消息◇

▲李東和氏(長淵有志) 去二十二日午前五時自宅에서長逝(長淵)

▲慶州修養團一行 去二十四日浦項에到着하야同團趣旨宣傳(浦項)

二十七日夜本邑耶蘇教禮拜堂內에서擧行(安岳)

# 橫暴한日人地主

[illegible]

當十一月二十八日(水曜)부터 世界的大名畫 大活劇 東道 全十一卷 神의 掟 全六卷 剛服者 全一卷 朝鮮劇場

當十二月二日(日曜)부터 週報 全一卷 新世帶 全二卷 千古의大森林 全二卷 薄命한處女 全五卷 人類의心 全七卷 團成社

化學的 白色美 사마구 毛髮 아이론 奧山理髮舘

大阪府元町一丁目一六 奧山理髮舘

寫字員募集 尙文社

自宅職業 熟練三圓 豐國總本店

土木, 建築用最適 야ー마十馬力으로二尺의材木을製挽함 各共進會名譽大賞牌受領

製材用 야ー마石油發動機 變式

吸入瓦斯發動機 山岡發動機工作所 大阪驛(梅田)東北 東京支店 九州支店

物質的信用은在於堅實이며 運動的活用은在於世昌洋靴

二十世紀文明月桂冠은疾足者ㅣ先占이요 活動舞臺에自信行動은世昌洋靴

千里之行이在於一步요 百年之計가在於一個이라

京城府鍾路二丁目靑年會舘內 世昌洋靴店 振替京城七八〇一 電話光化門一七八三番

注文하시오 活版印刷는 東亞日報社印刷部에 電話光化門三三四七

朝鮮銀行 總裁 美濃部俊吉 資本金八千萬圓 拂込資本金五千萬圓 積立金 ...

品質本位 經濟의點으로는無類의廉價! 化學的으로는純良하고最上의品質, 香氣로운泡沫의皮膚觸感이無雙愉快함 花王石鹼 製造元 東京 長瀨商會

"Voice of The Twenty Million"

# THE DONG-A ILBO.

SEOUL, SUNDAY, DEC. 2nd, 1923.

## WHY WE LAUGH LESS.

BY HON. T. H. YUN.

Some say that laughter is becoming a lost art in Germany. That may, or may not, be so; but one thing we are sure of is that the Koreans laugh far less today than they used to. Indeed, pessimism is well nigh universal. You ask a Korean, whatever his age, or education or social statue may be, what he thinks of the future prospect of the Korean people. The answer will be invariably the same, if not in words at least in purport, viz: "Hopeless!"

Now, this black pall of universal despair which is enveloping the Korean race is not so much due to the political helplessness as to the economic hopelessness. In the West, the modern industrialism with its marvelous equipment, its spacious factories, its tremendous concentration of capital has destroyed domestic industries reducing small manufacturers to common laborers. But it took a century or decades to effect this revolution. Small shops and factories were gradually supcreeded by great ones. Those who had to give up their own little workshops had the chance to earn wages in larger plants. The concentrated capital kept itself circulating among the people while they were prefitted directly and indirectly by the greater production and cheaper price, of the necessaries of life. So the industrial revolution was not an unmixed evil in a country like England or even Japan. But the Koreans had none of these advantages. The industrialism of happier countries come upon Korea like a flood or the late Earthquake which wiped out two of the greatest cities in the East within a few hours. The change was sudden. The factories and the capital and the labor, in fact, all the benefits of modern industrialism were in the hands of other nations. The finished products only rushed into unprepared Korea like tidal waves wiping out in their paths every form of native industry that used to supply the simple needs of the people. With trades gone, industries gone, positions gone, and worst of all, with rice fields going fast —— is it any wonder that the Koreans are growing desperate? You happier people, whoever you are, don't laugh that laughter is becoming a lost art also in Korea —— I mean among the Koreans.

英 文 欄

우리는 엇재 웃지 안는고

尹 致 昊

# 東拓改善斷行乎

鮮銀移管이內定되얏슴으로滿鮮金融改善의意味로此際東拓의改善도同時에斷行하리라는說이有한바鮮銀移管과東拓改善에는緩急의點에서事情이相異하다卽鮮銀은美濃部總裁의整理案에依하면不良貸付一千萬圓에對하야配當減額과人員整理로每年二百萬圓을捻出하야五個年에完了한다하나不良貸付는事實上三四千萬圓에達할모양으로遂히大藏省에整理를依賴하야鮮銀移管을決하고大藏省도亦四五千萬圓外지의救濟資金을融通하기로한바美濃部總裁를犧牲하고配當도減하기로하얏슴에는大藏省의意見은二分減의六分이엿스나最近三分減五分을主張하는等鮮銀整理는緊急을要하나東拓의改善은滿洲不動産金融設立의見地로胚胎한것인데鮮銀과가티緊迫한事情도아니요또此에對한各方面의意見도區々하야急速히決定키難한狀態인대大藏省側에서는

一、東拓의監督權을政府와大藏省에分割할事
二、東拓을事業部와資金々融部의二獨立會社에分立할事

等을主張하고東拓側에서는

一、監督權을大藏省에移함에는鮮銀과同樣으로反對하지아니할事
二、事業部의朝鮮移民에就하야는從來의日本人移住方法을改할事
三、滿洲不動産銀行을設立함에依하야現在의不動産金融機關의統制를할事
四、資金은現行과如히社債에依할뿐아니라郵便貯金其他長期低利資金獲得의方途를講할事

等의意見임과如함으로政府에서는拓殖經濟會議終了後愼重協議하야決定하리라더라(東京電)

# 鮮銀移管

## 妥協案決定

朝鮮總督府는大藏省의諒解成立한妥協案을作製中이든바今般大略其態案을得하얏슴으로目下總督府側과協議中인대決定되는대로來通常議會에朝鮮銀行法改正法律案으로提出할터이라하며鮮銀整理各種의根本問題는此移管案의進捗如何에依하게되얏슴으로移管案實現은必히朝鮮銀行法改正에伴하는것이요一部世上에서流布함과如히法律改正에依치아니하고單히監督權만을大藏省에讓함과如한事는不可能이며鮮銀移管을總括的으로하야鮮銀의行務整理는政府及日銀에서條件이決定되더인즉配當金도당히一、二分의減配는未免이며株主의諒解를得할程度外지進捗하게될지요次에最히重大한對策으로鮮銀移管에伴할것은日銀及政府의資金供給인바政府는아즉幾許의資金을如何한方針에依하야貸付할는지는決定치아니하얏스나復興資金의必要에依하야預金部及國庫의餘裕는枯渴되얏슴으로五千萬圓乃至一億圓假量의資金은반드시得할自信이有하다는데一方으로鮮銀은從來의一大缺陷이던日銀과의連絡도此際에決定하야整理資金을受하게되면經濟市場도從來의病的狀態를改善하게되리라더라(東京電)

# 郵船支店態度

役員改選에對한三十日大阪支店의態度는黑川副社長大谷專務의態度가判明치못함으로何等決定的態度를取함에不至하얏스나三十日東京同交會本部의協議會에서는急進派와穩和派間에만흔激論이有한模樣이라急進派에서는此際徹底하게重役을糾彈할것이라하고穩和派에서는大谷專務의是々非々主義가어느程度외지우리에게信用잇는것을본後態度를決定할것이라고主張하는모양이더라(大阪電)

# 兩港下旬貿易

▲大阪의十一月下旬貿易은左와如하더라(大阪電)

| | |
|---|---|
| 輸出 | 一四,四三四,〇〇〇圓 |
| 輸入 | 三〇,七六九,〇〇〇 |
| 入超 | 一六,三三五,〇〇〇 |
| 一月以後輸出 | 三一六,三四六,〇〇〇 |
| 同輸入 | 九〇五,九〇三,〇〇〇 |
| 同入超 | 五八九,五五七,〇〇〇 |

▲橫濱의十一月下旬貿易은左와如하더라

| | |
|---|---|
| 輸出 | 八百八十五萬八千圓 |
| 輸入 | 三百八十八萬圓 |
| 差引出超 | 四百九十七萬八千圓 |
| 一月以後出超 | 一億一千二百十六萬八千圓 |

# 東京月末金融

三十日東京短資市場은比較的平穩하며稍되는모양으로資金은그리潤澤치는못하나地方流出도一段落을告하고受取는特別銀行側의寬容도有하야金融은過不足이업스며率은翌日拂一厘高의二錢四五厘보다他는無條件二錢四五厘普通月越二錢三、五厘로保勢요割引步合은新證二錢二、五厘商業據保附共히二錢四、五厘로모다保勢인대當日에繰越된日銀貸出은二千萬圓增의六億千百萬圓으로六億圓臺가되고發行은三千百萬圓增의十三億九千五百萬圓이되얏다此와同時에限外發行도三千百萬圓增의二億一千四百萬圓으로二億圓臺에達하얏더라(東京電)

# 米價前途

本年正米界는現下狀況으로보아一般히下落하리라觀測하는바大體本年은日本은勿論朝鮮에서도例年에比하야二十日이나收穫期가遲하야精米業者의空腹에一時에出穀되기때문에過日과如한續騰을示하얏스나眞實한高低를現出한것은아니다一方霜降이遲함으로自然收穫이遲하고財界不況으로時勢가不振하야市場은殆히現物出廻가업는狀態이더니過日政府의買米中止와共히大阪의落報를接하고天候恢復과共히租의乾燥가圓滑한때문에出穀이漸次旺盛하야二三日前부터는相當한賣買가有한바所持者는低價에는不賣하고買方은高價에는不買함으로現物은의외로賣買가不振하는모양이나當日前에切迫함으로現在所持者는所持하고만잇슬수업는즉價格만좀조흐면賣出할터임으로歲末에際하야自然下落은不免할것이오當分間의步調로나가면明春四五月頃前에는眞實한好景氣는希望이업다고思한다(某米穀商談)

# 京城手形交換

京城手形交換所의十一月中手形交換高는枚數合計十萬七千四百二十一枚金額四千二百二十二萬八千八十八圓인바十月分交換高에比較하면枚數는四千六十九枚의增加이나金額은一萬三千八百二十圓의減少인대更히此를大正十、十一年十一月中交換高에比하면前年同月에比하야는二百二十七萬六千九百七十七圓의增加이나大正十年同月에比하면五百八十三萬八百八十七圓의激減이며今十一月中交換證書種類別交換高는左와如하더라

| 證書種類 | 枚數 | 金額 |
|---|---|---|
| 小切手 | [illegible] | [illegible] |
| 爲替手形 | [illegible] | [illegible] |
| 約束手形 | [illegible] | [illegible] |
| 政府預金小切手 | [illegible] | [illegible] |
| 郵便爲替 | [illegible] | [illegible] |
| 公債々券 | [illegible] | [illegible] |
| 同利札 | [illegible] | [illegible] |
| 雜證票 | [illegible] | [illegible] |
| 合計 | [illegible] | [illegible] |

更히本年下半期以後累計交換高를比較하면前年同期의交換高와如하더라

| 月別 | 本年金額 | 前年金額 |
|---|---|---|
| 七月 | [illegible] | [illegible] |
| 八月 | [illegible] | [illegible] |
| 九月 | [illegible] | [illegible] |
| 十月 | [illegible] | [illegible] |
| 十一月 | [illegible] | [illegible] |

# 撫順炭價引下

朝鮮內의石炭需要는其節期에入하얏슴으로激甚히增加한바一般財界不況에際하야九州炭이格別한低價로朝鮮內에流入하야滿洲撫順炭과競爭하는狀態이더니京鐵局에서는今回同局販賣의撫順炭을遂히十二月一日부터落價하얏는바京城內에서最低七十錢最高二圓의引下이라此는一般市況에順應한것임으로그程度도여러가지差가有하다하며落價의分은爲主히小賣에對한것이요官廳會社와如히多量의需要者에는其時에市價에應하야契約할터임으로今回의落價와는無關係인대主要地의改正撫順炭小賣貨車積戰價格如左하더라

| | |
|---|---|
| 京城龍山 | 十九圓八十錢 |
| 大田 | 二十圓五十錢 |
| 大邱 | 二十一圓九十錢 |
| 元山 | 二十圓七十錢 |

# 不渡手形減少

京城手形交換所十一月中不渡手形은百十六枚一萬三千六百九十圓八十八錢인바十月分不渡手形에比較하면枚數는二十四枚의增加이나金額은三千九百四十五圓七十三錢의減少이라더라

# 朝郵穀物輸送

日本米不足에因한穀價의騰貴에從하야朝鮮米移出米가激增한際에震災後船舶의需要가多하야穀物積載로朝鮮에來航하는臨時社外船이減少하야滯貨를生할憂가有함으로此의缺陷을補充키爲하야朝鮮郵船에서는遞信局의勸誘에從하야傭船料의高下에不拘하고從하야傭船하야수나輸送力은從前과如히恢復되지아니하얏고震災地는復興材料日常品等의需要가益々多함에至하얏슴으로船舶界는活況을呈하야運賃傭船料의暴騰을見하얏는대震災前後運賃比較는左와如하더라

| 區間 | | 災前 | 災後 |
|---|---|---|---|
| 仁川阪神間 | 米穀百石 | 七五 | 九〇 |
| 鎭南浦 同 | 同 | 八〇 | 九五 |
| 釜山 同 | 同 | 六〇 | 七〇 |
| 元山 同 | 同 | 七五 | 八五 |
| 同 關門間 | 同 | 七五 | 八五 |
| 釜山 同 | 同 | 六〇 | 七〇 |
| 新義州橫濱間 | 木材一噸 | 六 | 七 |

# 朝鮮海運界의震災影響

遞信局海事課에서는震災에依한海運狀況을調査하얏는대此에對하야海事課長吉村謙一郞氏는左와如히語하더라

久히不況裡에在하든海運界도震災以來俄然히船舶의需要가多하야活況을呈함에至하얏는대此는震災直後救恤品의輸送은陸上輸送機關의破滅에依하야船舶에依하는者가多하고且橫濱東京의上陸設備의壞滅에依하야滯船日數가多하게되얏슴으로益々船舶의需要를喚起함에至하얏는데其後陸上運輸機關의恢復을見함에至하얏스나輸送力은從前과如히恢復되지아니하얏고…이다

# 財海餘波

▲朝鮮의中央銀行보다도滿洲에對한不當貸附問題로有名하게된朝鮮銀行은低利資金融通의條件으로大藏省移管이決定된模樣이라한다그러나最近東京에서歸來한某當局者의語를聞하면移管에對하야는何等具體化한것이업고內情을具陳하야日銀의諒解를得함에不過한즉此는臆測에因한風說이라고어느것이風說인지모르겟다▲東拓에對하야改善할點이多함은勿論이어니와東拓에依하면今般鮮銀整理와共히改善을斷行하리라한다▲漠然한內容에對하야批評함은早計이어니와改惡이나되지아니하엿스면幸甚일것이다

◎朝鮮銀行券(三十日)

| | |
|---|---|
| 發行高 | [illegible] |
| 正貨準備 | [illegible] |
| 限外發行 | [illegible] |

◎日銀帳尻(廿九日)

| | |
|---|---|
| 發行高 | [illegible] |
| 正貨準備 | [illegible] |
| 限外發行 | [illegible] |
| 貸出高 | [illegible] |

(以上千圓單位)

◎京城手形交換(一日)

| | |
|---|---|
| 枚數 | 四,二〇一 |
| 金額 | 二,一〇三,三二一 |

◎日本金利(三十日)

金利(一錢單位) 東京 大阪

| | 東京 | 大阪 |
|---|---|---|
| 무조건 | [illegible] | [illegible] |
| 無條件 | [illegible] | [illegible] |
| 翌日物 | [illegible] | [illegible] |
| 月越物 | [illegible] | [illegible] |
| 六十日 | [illegible] | [illegible] |
| 普通割引步合 | [illegible] | [illegible] |

# 海外經濟電報

(一日着電)

| | |
|---|---|
| 英米爲替 | 四弗卅三仙八分의一(二仙二分의一低) |
| 스 펄 | 九十四弗四分의三(一弗八分의五低) |
| 아나콘다 | 三十八弗八分의一(四分의一低) |
| 倫敦銀塊 | 卅三片十六分의七 |
| 米棉 | 一圓四十錢低 |
| 紐育銀塊 | 六十四仙八分의三(四分의一高) |
| 橫濱生絲 | 武州格 二〇四〇圓 |

# 株式市場

## 大新大暴落

### 京取保勢

大阪短期大新과鐘紡의付價低하야二十錢의下落인八十四圓八十錢과二百八十四圓五十錢으로報함에不拘하고京取短期大新은一氣로二圓低價의八十四圓五十錢에付하야八十四圓臺에서相支하다가大阪長期鐘紡二圓三十錢의低價三百四圓十錢을報하나大新은昨價의八十一圓六十錢을報함에不拘하고更히八十圓臺를破壞하고七十九圓八十錢에서混戰하다가遂히七十九圓五十錢에止하니昨止價에比하야實로三圓의大暴落이며買氣不振하야仁新은三十四圓四十錢의一日價로前場을止하고後場은開市後長期京取는大新과같이低落하얏다…

가有하고寄付價止價가無하며安取는十五圓六十錢으로止할뿐이엇다長期京取當은三十四圓九十錢에付하야四十錢의下落이나止價不多하야落하止價를示하얏고京取當은三十四圓七十錢에付하야七十錢의下落이나遂히一圓十錢에止하야一圓十錢의暴落을告하고其他諸株는一圓五十錢의暴落高價三十二圓으로付하얏는데長期大新은前場보다五十錢의低價七十九圓에付하야前止價보다一圓의下落을示하고仁取는大阪保勢의影響으로短期나後場에大新은前場止價보다五十錢의…先限은稍高의三十四圓六十錢에付하고三十錢에止하야…이며其他諸株도모다保勢狀態이더라

## 京株賣買高

一日의京取市場의賣買成立高는如左하더라

| | |
|---|---|
| 甲部 | 一千一百二十枚 |
| 乙部 | — |
| 短期 | 九百五十枚 |

## 大阪株式

(一日前場)

| 株名 | 寄付 | 大引 |
|---|---|---|
| 大株 | [illegible] | [illegible] |
| 同新 | [illegible] | [illegible] |
| 鐘紡 | [illegible] | [illegible] |
| 同新 | [illegible] | [illegible] |
| 商船 | [illegible] | [illegible] |
| 同新 | [illegible] | [illegible] |
| 郵船 | [illegible] | [illegible] |
| 同新 | [illegible] | [illegible] |
| 東紡 | [illegible] | [illegible] |
| 日糖 | [illegible] | [illegible] |
| 上取 | [illegible] | [illegible] |

## 大阪株式延取引

| | 寄付 | 大引 |
|---|---|---|
| 大新 高 | [illegible] | [illegible] |
| 低 | [illegible] | [illegible] |
| 止 | [illegible] | [illegible] |
| 鐘紡新 | [illegible] | [illegible] |

## 內外糖暴落

外糖五十錢暴落의報를接하야日本粉蜜糖은現物二十五圓으로七十錢低價日의暴落이요保稅物은十二月渡十八圓六十錢으로二十八圓二十錢이高하고糖現物은二十八圓七十五錢으로五十錢下落이더라(大阪電)

## 大阪期米暴落

問題의정郵船紛擾의解決로朝鮮米入荷를豫想하고相當한賣崩이잇는者의賣退가多하야先限寄에示하든新甫二月限도四圓暴落하얏더라(大阪電報)

## 大阪綿絲

(一日前場)

| | 寄付 | 大引 |
|---|---|---|
| 十二月 | 三〇三,一〇〇 | 三〇三,七〇〇 |
| 一月 | 三〇四,八〇〇 | 三〇四,五〇〇 |
| 二月 | 三〇四,四〇〇 | 三〇四,九〇〇 |
| 三月 | 三〇四,三〇〇 | 三〇八,九〇〇 |
| 四月 | 三〇七,〇〇〇 | 三〇八,〇〇〇 |
| 五月 | 三〇六,二〇〇 | 三一一,四〇〇 |
| 六月 | 三〇七,二〇〇 | 三一一,九〇〇 |

## 短期取引

| | 一日前場 | 後場 |
|---|---|---|
| 大新 | [illegible] | [illegible] |
| 仁取 | [illegible] | [illegible] |
| 同新 | — | — |
| 朝紡 | — | — |
| 中鐵新 | — | — |
| 拓新 | — | — |

## 滿取

| | | |
|---|---|---|
| 安取 | [illegible] | [illegible] |

買賣(即京取株)賣買(即通貨)發行時代 京城府長橋町六〇 株式仲買人 金應龍 電光化門一三〇六番 市場專用本一八八五番

## 京城綿絲布標準價

| | |
|---|---|
| 廣木三A | 二九八,〇〇〇 |
| 九曲A | 二九三,〇〇〇 |
| 大A | 二八七,〇〇〇 |
| 金剛山 | 二五九,〇〇〇 |
| 金剛山 | 二四〇,〇〇〇 |
| 丁酉山 | 一九九,〇〇〇 |

期米記事는欄外로

## 京株賣買價(一日)

| 株名 | 前場 當限 | 前場 先限 | 後場 當限 | 後場 先限 |
|---|---|---|---|---|
| 京取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仁取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同新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鮮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同新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殖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同新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實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商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同新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漢銀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同新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朝二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東拓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同新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鮮土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朝紡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朝電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京電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同新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京瓦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釜瓦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朝郵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滿取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朝鐵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京南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金剛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滿鐵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同新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東證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同新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勸債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朝債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殖債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泰債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仁川期米市場

## 新甫前途如何

今朔發會二月限新甫豫想은各地… 別無하게一向上騰되엿스며政府米拂下說이突然傾向으로이에는雖云硬派라도얼마間退步하게되나若干市正의低落되엿스나… 이라하고其反面軟派의說은以來는다强한便이오各地二月限新市發會豫想은三十丁乃至四五十丁外의高率을成하얏스니이에其程度外의上鞘로傳하엿스며當地亦是最近三四年間의前例를보더라도上…

▲第一節 當은七十丁弱한二十八圓七十錢으로中은客月納會보다二十六丁弱한二十八圓七十九錢이오先限… ▲第二節 當은二十八圓八十錢에一口有하고中은八圓八十錢으로六十錢이오先限은阪地二節十…十一錢에止하다 ▲第三節 當은不成이나中限은…軟優勢로되니始價五十錢을最高… 二十五錢外지低價를示하… 三十錢臺에서混戰으로二十… 强態로止하다 ▲第四節 當은不成에中은八圓四十錢으로二十錢이오先限은阪地五圓臺로對下四圓六十錢臺外… 合으로五十錢에… 市의極力防戰은攻勢로變하며始價四十錢을最低로八十錢外지高步되고七十錢에强硬하게止하다 ▲第六節 當은不成에中은二十八圓四十錢에付하야漸落五十錢에止하고先은二十八圓七十五錢

| | |
|---|---|
| 初付 | 二十九圓 |
| 止價 | 二十八圓七十三錢 |
| 高價 | 二十九圓 |
| 低價 | 二十八圓二十錢 |
| 公定價格 | |

同日後場

| | |
|---|---|
| 六節 | 二十八圓七十三錢 |
| 七節 | 二十八圓七十三錢 |
| 初付 | 二十八圓… |
| 三節 | 二十八圓五十四錢 |
| 四節 | 二十八圓七十四錢 |
| 五節 | 二十八圓六十九錢 |
| 六節 | 二十八圓四十四錢 |


# ホシ胃腸藥デー

一日 二日 三日 四日 五日 六日 七日

一 사십시요、별표胃腸藥을求하십시요、별표胃腸藥을。
二 별표胃腸藥은、貴家庭에不可無할常備藥입니다。
三 貴家庭에별표胃腸藥의用意가잇스면永久히胃腸病으로苦痛하는이가無할것임니다。
四 다만胃腸病뿐만아니라生理作用이示함과갓치胃腸의澁滯는腦의澁滯임니다頭腦를明晰케하기爲하야도별표胃腸藥을服用하시요。
五 便秘로苦痛하는이는만히잇소。그런니는每食後별표胃腸藥을一匙式服用하시면便通이非常히良好하게됨니다。

ホシ胃腸藥

| 定價 | |
|---|---|
| 二十錢 | |
| 五十錢 | |
| 一圓 | |
| 二圓 | |

資本金五千萬圓
星製藥株式會社
東京 大崎